

롯데마트 PB, 협력사와 '쑥쑥'... 189개사와 3천억 매출

'온리프라이스' 출시 3주년

상품 총 540개, 판매 1.5억개
고객 61% 온리프라이스 구매
종이컵 기업 용호산업, 2배 성장
정수필터 사워헤드 '베스트셀러'

출시 3년을 맞은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온리프라이스'가 매출액 3000억 원을 돌파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3년간 총 540개 상품을 출시한 온리프라이스는 그동안 약 1억 5000만개의 판매량을 기록, 누적 매출액으로는 약 3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온리프라이스'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파트너사와 예상 판매량을 산정해 총 물량 단위로 계약하고, 그 물량에 대해서는 롯데마트가 100% 책임지



모델들이 롯데마트의 PB 브랜드 온리프라이스 3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롯데쇼핑

는 구조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총 189개의 파트너사와 협업을 진행, 파트너사의 상생과 함께 온리프라이스도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온리프라이스 브랜드 론칭과 동시에 선보인 가성비 높은 일회용 종이컵/종이그릇 성장은 눈여겨 볼만 하

다. PB상품 개발로 롯데마트와 첫 거래 파트너사가 된 '용호산업'은 당사와의 협업을 통해 3년 사이 거래액 기준 2배의 성장을 이뤘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PB상품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롯데마트는 고객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파트너사의 협업과 신뢰가 무엇보다

크게 좌우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고객 중 온리프라이스를 구매하는 고객의 비율이 2017년 37%, 2019년 61%로 상승, 두 명 중 한 명 이상은 온리프라이스를 선택하는 당사 핵심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높은 품질의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한 것도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8년 12월 론칭한 '온리프라이스 정수필터 사워헤드'와 '리필 제품'은 대형마트 최초 PB로 출시하자마자 큰 인기를 얻어 온리프라이스 대표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기도 했다. 출시 후 누적 10억 매출, 13만개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9년 6월 인천과 서울 및 부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수돗물' 사태를 맞아 상품을 출시해 선제적으로 대응, 월 평균 200% 이상의 신장률을 보였다. 해당 상품은 최초 9개월 동안 예상되는 물량을 준비했으나,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을 기록하고 6차 재주문까지 진행하고 있다.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달성한 결과물이다.

롯데마트는 온리프라이스를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통해 고객과 혜택을 공유하는 상생 이상의 브랜드로 성장시킬 복안이다.

온리프라이스의 주요 품목 매출액 일부를 소외 아동 음악 재능 육성을 위한 'Dream 캐처스'에 기부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소외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착한 상품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롯데마트 김창용 MD본부장은 "온리프라이스가 고객들에게 지극한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장비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파트너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홈플러스 "달콤한 초콜릿 선물 하세요" 홈플러스가 오는 14일까지 초콜릿 및 제과 300여 종을 모아 '해피 밸런타인 데이' 기획전을 진행한다. 사진은 모델들이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기획전 상품들을 선보이는 모습. /홈플러스

"밸런타인에 어울리는 샴페인 맛보세요"

이마트24, 샴페인 등 4종 선봬

이마트24가 밸런타인데이가 있는 2월에 어울리는 샴페인 3종과 모스카토 1종 등 와인 4종을 착한 가격에 선보인다.

먼저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와인포인트 모바일 앱에서 ▲쁘띠 브뤼 로얄(750ml) ▲로랑페리에 브뤼 L-P(750ml) ▲떼망저 귀베 프레스티지 브뤼 (750ml) 등 정가가 9만9000원의 명품 샴페인 3종을 각 48병씩 5만4900원에 한정 판매한다.

명품 샴페인 3종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와인 포인트 모바일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다. 와인 예약 후 와인이 매장에 도착하면 고객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며, 와인 픽업 시 주문 바코드와 신분증 제시 후 결제하면 된다.



쁘띠 브뤼 로얄, 로랑페리에 브뤼 L-P, 떼망저 귀베 프레스티지 브뤼, 반피 티아라 모스카토 틴케이스 패키지(왼쪽부터) /이마트24

이번 행사는 지난달 이마트24와 와인포인트가 와인 O2O 서비스 픽업 점포 수(742점) 확대 기념으로 내놓은 샤토몽페라 루즈 2015에 보내준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했다. 240병 한정 물량으로 준비한 샤토몽페라 루즈 2015는 예약 시작 3시간만에 완판되는 등 고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원선 기자

갤러리아, 명품시계 '예거 르쿨트르' 특별展

29일까지 총 5종 전시

갤러리아명품관은 오는 29일까지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예거 르쿨트르'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9일 밝혔다.

갤러리아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듀오미터 스페로트루비옹'은 4억 원대 로 예거 르쿨트르의 위치 메이킹 기술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중력으로 인한 오차를 상쇄하는 기술인 '투르비옹' 기능에 20도 기울어진 중심축을 하나 더

추가 하여 투르비옹이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다.

이 외에도 기존 랑데부 컬렉션을 재해석해 168개의 다이아몬드를 프롱(Prong) 기법으로 촘촘하게 세팅한 '데즐링 랑데부 문'과 아름다운 하늘을 본뜬 '랑데부 셀레스티얼' 그리고 위치 메이킹 기술에 수공예를 더하여 3.6mm와 4.7mm라는 얇은 두께의 다이얼을 구현해낸 '마스터 울트라 썬 스퀘레트' 2종을 함께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예거 르쿨트르 /갤러리아백화점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팔레트 4종

아리따움은 '모노아이즈'의 대표 색상 중심으로 9가지 색도를 새롭게 구성한 '모노아이즈 팔레트' 4종을 출시했다.

모노아이즈는 다양한 색상과 합리적인 가격대의 색도로 지난 2013년 출시 이후 2천만 개 이상 판매된 아리따움의 대표 인기 제품이다. 선명한 발색과 가루 날림 없는 뛰어난 제품력까지 갖춰 이미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팔레트 라인업은 고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모노아이즈의 인기 컬러 4가지 '얼스' '소셜라이트' '드라이로즈(사진)' '미드나잇핑크'가 각 팔레트의 대표 색상이다.

팔레트는 9가지 색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 색상 1가지와 신규 색상 8가지로 이뤄져 있다.

대표 색상과 조화롭게 메이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의 베이스 및 포인트 색도, 반짝이는 펄 소재의 글리터 색도 등으로 조합해 소장 욕구를 높였다. /조효정 기자



7일(현지시각) SPC그룹 셰이크셱 싱가포르 2호점 '닐로드점'에 고객들이 길게 줄을 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SPC그룹

SPC, 셰이크셱 싱가포르 2호점 대성황

SPC그룹은 지난 7일 '셰이크셱(Shake Shack)' 싱가포르 2호점 닐로드(Neil Road)점이 성황리에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셰이크셱 닐로드점에는 그랜드 오픈 시간인 오후 7시 30분(현지시각) 이전에 이미 300여 명의 고객들이 200m 이상 줄을 서는 등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셰이크셱은 오픈 당일 방문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스페셜 에디션 토트백을 증정하고, 오픈 세레머니로 라이팅 쇼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오픈 첫날 셰이크셱 닐로드점에서는 쉐버거, 쉐스택, 스모크셱 등의 대표 메뉴 외에도 싱가포르에서는 처음으로 선

보인 신제품 '치킨셱(Chick'n Shack)'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닐로드점 시그니처 콘크리트(아이스크림 디저트) '오픈 셰서미'와 '아이 오브 더 타이거'도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SPC그룹은 자체 개발한 토종 효모로 만든 번(bun, 햄버거빵)을 SPC 삼림에서 생산해 싱가포르 매장에 수출, 공급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문을 연 싱가포르 첫 매장인 '주얼차이점'은 일 평균 4천여명 이상 방문하는 등 아시아 지역 최대 매출을 올리는 매장으로 자리잡았다"며 "싱가포르 대표 변화가에 위치한 닐로드점도 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